

Likert 척도

Editorial

김광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Likert Scale

Kwangmin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논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문의 경우 연구 참신성 및 결과 분석, 고찰 등이 뛰어나나 연구 계획 단계에서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게재 불가를 통보하게 되는 아쉬운 경우들이 있다. 특히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설문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아서 논문 게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어떤 척도로 응답을 표시하는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태도, 인식에 대한 응답을 물어보는 척도로 대표적인 것이 Likert 척도이며,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측정하며, 문항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답자 중심의 척도이다. 해당 현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문항에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문항에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대답을 할 것이다. 따라서 리커트 척도는 중립적인 문항보다는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리커트 척도는 문항들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범주를 제시하는데, 응답을 위한 잣대는 우선 두 극단으로 나누고(긍정-부정 혹은 높음-낮음) 그 사이의 간격을 보통 2-7 부분으로 나누는데, 각 부분간의 거리 간격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척도의 응답 개수가 늘어나면 척도의 신뢰도가 증가하게 된다.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의 경우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5점 척도의 경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이며, 4점 척도의 경우는 중립적인 응답 범주를 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이다.

리커트 척도의 변형된 모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척도들은 하나의 설문 안에 혼합된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

매우 만족함	매우 비효과적임
만족함	비효과적임
보통임	잘 모르겠음
조금 불만스러움	효과적임
매우 불만스러움	매우 효과적임
매우 동의한다	매우 찬성함
동의한다	찬성함
불확실하거나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음
반대한다	반대함
매우 반대한다	매우 반대함

리커트 척도의 장점은 제작이 용이하고 구성이 간단하고 편리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채택될 수 있으며, 적절한 변형을 통해 여러 가지 정의적 심리 특성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혹 접하게 되는 설문지 응답 구성에 대한 실수나 잘못이 있는데, 응답을 양 극단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 맛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을 “맵게 먹지 않거나 보통이다, 맵게 먹는다, 매우 맵게 먹는다” 등으로 분류한 경우는 서열 및 등간을 고려한다면 “전혀 맵게 먹지 않는다, 맵지 않게 먹는다, 맵게 먹는다, 매우 짜게 먹는다” 이거

나 “전혀 맵게 먹지 않는다. 맵지 않게 먹는다. 보통이다. 맵게 먹는다. 매우 맵게 먹는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개수에 따라서도 통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 해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설문에 대한 응답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